

##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련성

이미라<sup>1</sup>, 정수진<sup>2\*</sup>

<sup>1</sup>백석문화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sup>2</sup>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The Relevance between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Mi-Ra Lee<sup>1</sup>, Su-Jin Jung<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려고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충청남북도 3개 대학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치위생과 대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자기효능감( $r=.337$ ,  $p<0.001$ ), 의사소통능력( $r=.293$ ,  $p<0.001$ )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효능감도 의사소통능력( $r=.634$ ,  $p<0.001$ )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자기효능감, 학점 및 전공만족도였다. 설명력은 19.0%였다. 이에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임상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치위생과 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he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 data survey was conducted on 201 students of Chungcheong Province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Data were analyzed by anova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 $r=.337$ ), communication competence ( $r=.293$ ) and self-effic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mmunication competence ( $r=.633$ ). Factors affected to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ere self-efficacy, academic score, and major satisfaction.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clinical practice education programs that can enhance students' self-efficacy and improve their communication competence.

**Key Words** : Communication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Dental hygiene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Su-Jin Jung(sjjung@konyang.ac.kr)

## 1. 서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더불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통증이 있어야만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통증이 발생하기 전에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과에 방문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강진료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따라 구강질환예방 관련 지식과 기술을 주요업무로 담당하는 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1,2].

치위생학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만을 습득하는 학문이 아닌 반드시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해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 실제 임상현장에서 실습하는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해 미리 체험하는 학습을 하게 된다. 치위생학 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교과는 필수이수 교과목으로[3],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은 임상현장에서 다루어지는 진료과정 및 내용에 대한 직접체험을 통해 학습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임상현장에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인식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4,5]. 또 학생들에게 치과위생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며 전공에 대한 자신감과 학과에 대한 만족감도 가져다 주고, 다양한 환자에 대한 경험을 통해 치과인력 간의 협업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6]. 이와 같이 임상실습은 치위생학 교육과정에서 임상실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과정임으로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임상수행을 위해서는 전공분야와 임상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신감 있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의 직업기초능력 영역 중 하나인 의사소통능력 또한 만족도 높은 임상수행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목표한 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한다[7,8].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상황에 대처할 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와 해결 가능하다는 강한 자기신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9-11]. 또한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행에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수기능력과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으로[12]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임상실무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이 의도한대로 타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13], 임상현장에서 성공적인 환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년제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만족도 높은 임상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참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충청남도 3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 중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법을 작성한 후 회수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설문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본 조사에 동의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시행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임상실습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감안하여 예측변수 6개로 하였을 때 G\*power 3.1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로 146명이 필요하였다. 탈락률을 감안하여 220부를 배부하여 이 중 무성의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하고 총 20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만족도로 구성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학년, 종교, 실습기관, 실습 시 거주지, 전공만족도, 학점 6문항을 포함하였다.

2.2.1 자기효능감

Schwarzer & Jerusalem가 개발한 한글판 자기효능감척도를 연구자의 대상자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15]. 총 1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0.868이었다.

2.2.2 의사소통능력

허경호가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를 연구 대상자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16]. 총 15개의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0.888이었다.

2.2.3 임상실습 만족도

전미진 등과 양정승의 도구를 참고하여 연구대상자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17,18]. 이 도구는 하위 5개 영역으로 실습내용 5문항, 실습지도 5문항, 실습환경 5문항, 실습기관 3문항, 실습평가 2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0.932이었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alpha=0.05$ 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는 T-tset와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인 집단은 사후분석으로 Scheffe를 이용하였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실시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중

2학년은 50.2%였고, 3학년은 49.8%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음'이 79.6%였고, '있음'은 20.4%로 나타났으며, 실습기관은 치과의원이 71.4%로 가장 높았고, 치과병원 22.4%, 종합병원 6.0% 순으로 나타났다. 실습 시 거주지는 '자택'이 79.1%로 가장 높았고,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52.2%, 학점은 '중'이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2 임상실습 만족도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위영역인 내용, 지도, 환경, 기간, 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2와 같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88점이었다. 임상실습 내용만족은 4.03점, 임상실습지도만족은 3.99점, 임상실습환경만족은 3.88점으로 평균점수보다 높거나 같았으며, 임상실습평가만족과 임상실습기간만족은 각각 3.74점과 3.54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1)

Characteristics	Division	N(%)
Grade	2nd	101(50.2)
	3rd	100(49.8)
Religion	No have	160(79.6)
	Have	41(20.4)
Practice organization	General hospital	12(6.0)
	Dental hospital	45(22.4)
	Dental Clinic	144(71.4)
Residence while practicing	Own house	159(79.1)
	Relative's house	3(1.5)
	Boarding house or share house	31(15.4)
	Dormitory	8(4.0)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9(4.5)
	Normal	87(43.3)
	Satisfied	105(52.2)
Academic score	Lower level ( ≤ 2.9 )	40(19.9)
	Middle level ( 3.0-3.9 )	101(50.2)
	High level ( ≥ 4.0 )	60(29.9)

Table 2.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2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ean±SD
Contents	4.03 ± 0.67
Guidance	3.99 ± 0.75
Circumstance	3.88 ± 0.70
Period	3.54 ± 0.93
Assessment	3.74 ± 0.95
Total	3.88 ± 0.63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만족도는 Table 3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37점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3.70점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8점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실습기관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인 경우 각각 3.46점, 3.39점으로 종합병원 2.81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 3.49점으로 '불만족' 2.9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전공만족도가 '만족'과 '보통'인 경우 각각 3.78점, 3.67점으로 '불만족' 3.0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가 '만족'과 '보통'인 경우 각각 4.02점, 3.82점으로

'불만족' 2.91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점이 '상'과 '중'인 경우 각각 4.05점, 3.93점으로 '하'인 3.5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 3.4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자기효능감( $r=0.337$ ,  $p<0.001$ ), 의사소통능력( $r=0.293$ ,  $p<0.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 $r=0.634$ ,  $p<0.001$ )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N=201)**

Characteristics	Division	Self-efficacy	p-value	Communication competence	p-valu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p-value
		Mean±SD		Mean±SD		Mean±SD	
Grade	2nd	3.34 ± 0.56	0.481	3.70 ± 0.44	0.832	2.56 ± 0.81	0.906
	3rd	3.40 ± 0.62		3.69 ± 0.67		2.57 ± 0.75	
Religion	no have	3.37 ± 0.61	0.816	3.69 ± 0.58	0.888	2.57 ± 0.81	0.814
	have	3.39 ± 0.79		3.71 ± 0.51		2.54 ± 0.68	
Practice organization	General hospital	2.81 ± 0.79 <sup>a</sup>	0.003 <sup>**</sup>	3.37 ± 0.39	0.091	2.80 ± 0.87	0.746
	Dental hospital	3.46 ± 0.59 <sup>b</sup>		3.66 ± 0.54		2.54 ± 0.83	
	Dental Clinic	3.39 ± 0.55 <sup>b</sup>		3.73 ± 0.57		2.56 ± 0.77	
Residence while practicing	Own house	3.35 ± 0.61	0.337	3.69 ± 0.56	0.958	3.87 ± 0.65	0.639
	Relative's house	3.90 ± 0.81		3.83 ± 0.66		4.35 ± 0.75	
	Boarding house or share house	3.42 ± 0.55		3.70 ± 0.55		3.90 ± 0.52	
	Dormitory	3.53 ± 0.59		3.77 ± 0.74		3.87 ± 0.73	
Satisfaction of major	Dissatisfied	2.97 ± 0.78 <sup>a</sup>	0.005 <sup>*</sup>	3.00 ± 1.04 <sup>a</sup>	0.000 <sup>***</sup>	2.91 ± 0.42 <sup>a</sup>	0.001 <sup>**</sup>
	Normal	3.27 ± 0.62 <sup>ab</sup>		3.67 ± 0.52 <sup>b</sup>		3.82 ± 0.61 <sup>b</sup>	
	Satisfied	3.49 ± 0.52 <sup>b</sup>		3.78 ± 0.50 <sup>b</sup>		4.02 ± 0.63 <sup>b</sup>	
Academic score	Lower level	3.38 ± 0.44	0.314	3.71 ± 0.49	0.525	3.54 ± 0.53 <sup>a</sup>	0.000 <sup>***</sup>
	Middle level	3.32 ± 0.65		3.65 ± 0.62		3.93 ± 0.64 <sup>b</sup>	
	High level	3.47 ± 0.57		3.76 ± 0.50		4.05 ± 0.59 <sup>b</sup>	
Total		3.37 ± 0.59		3.70 ± 0.56		3.88 ± 0.63	

\* :  $p<0.05$ , \*\* :  $p<0.01$ , \*\*\* :  $p<0.001$ , <sup>a,b</sup>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Scheffe's test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201)**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efficacy	1		
Communication competence	0.634 <sup>***</sup>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0.337 <sup>***</sup>	0.293 <sup>***</sup>	1

\*\*\* :  $p<0.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for related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201)**

Independence variable	B	SD	β	t	p
Grade (3th)	0.050	0.082	0.039	0.606	0.545
Religion (Have)	0.049	0.103	0.031	0.473	0.637
Satisfaction of major	0.188	0.077	0.173	2.454	<0.015
Academic score	0.167	0.061	0.184	2.730	<0.007
Self-efficacy	0.226	0.088	0.212	2.558	<.0011
Communication competence	0.126	0.094	0.112	1.353	0.178
F=8.797(p<0.001), R <sup>2</sup> =0.214, Adj R <sup>2</sup> =0.190					

Reference group: Grade\*2nd, Religion\*No

### 3.5 임상실습 만족도 관련 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0.1 이상이거나 VIF값이 10이하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98로 잔차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1.0-3.0 사이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와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8.797,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는 0.190으로 19.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에는 자기효능감(β=.212), 학점(β=.184), 전공만족도(β=.173)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만족스러운 실습을 하지 못했을 경우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함에 있어서 임상이 주 업무인 치과진료기관을 배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 중 실시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9].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개발과 참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의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88점이었으며, 하위영

역별 평균점수는 임상실습내용만족 4.03점, 임상실습지도만족 3.99점, 임상실습환경만족 3.88점, 임상실습평가만족 3.74점, 임상실습시간만족 3.54점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임상실습내용만족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임상실습시간만족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나 임상실습내용만족이 가장 높고, 임상실습시간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난 연구와 임상실습내용만족이 가장 높고 임상실습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20,21], 임상실습교과만족 등이 높게 나타난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17,22-24].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 하위영역에 대한 점수는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였으나, 임상실습평가와 임상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점수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실습기관별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음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한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되며, 학생들이 임상실습평가기준에 대해 불만족한 요인으로 평가의 객관성이 없고 각 진료과의 평가기준을 알 수 없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8].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위영역별 만족도는 모든 영역에서 실습기간연장과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했으므로[24], 임상실습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 실습기관과 기간에 대해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나타나 평균점수 3.19점인 연구와는 다소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25], 2.96점인 연구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26]. 실습기관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서 실습한 경우가 종합병원에서 실습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실습관련 행위와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인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27]이 종합병원실습의 경우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의 실습에 비하여 덜 충족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서 실습 학생에게 주어지는 실습교육의 범위와 양이 상급기관인 종합병원에서는 기존의 치과인력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습관련 행위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공만족도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만족인 경우가 불만족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보이는 학생들이 높은 전공만족도를 보인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며[28],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진로선택을 잘하기 위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요인이 되므로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의 중요한 예측요인이 된다는 연구[29]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70점으로 나타나 평균 점수 3.48점인 연구와 3.53점인 연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30,31], 3.32점인 점수보다는 높게 나타났다[32]. 이는 대상자는 다르지만 학년이 높고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능력이 더 좋았다는 연구[33]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결과로, 임상실습경험을 통하여 저학년보다는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인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에 대한 의사소통능력은 만족과 보통인 경우에 높게 나타나 전공만족도가 만족 수준인 경우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30,31].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느끼며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공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습득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 및 치과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에 더 자신감 있고 원활하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강의식 수업방식이 아닌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며, 역할극 등을 통해 치과임상현장을 미리 체험해보는 방식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교과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8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의 평균점수 2.74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17],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한 평균점수 3.11점인 연구와 3.09점인 연구, 3.29점인 연구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2,21,23]. 이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영향으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실습지도자들의 노력과 임상실습기관별로 시행하는 실습 전 적응교육 및 임상실습교육과정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는 타 전공학과에 의한 자극이 영향을 미쳐 나타난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전공만족도에 대한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과 보통인 경우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위생(학)과 전공과정에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임상실습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다고 한 연구 등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2,17,21,23,24]. 이에 교수자들은 변화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과 낮아지게 하는 요인들을 함께 파악하는 노력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점에 대한 임상실습 만족도는 상과 중수준의 성적인 경우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점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한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21],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다고 한 연구 등과는 유의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23,24,34]. 따라서 학생들이 실습기관에서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에 맞는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한세영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35],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최문실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32]. 즉, 변수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대학생들은 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기능적인 의사소통 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36,37]. 따라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들이 먼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교과과정을 계획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도 자기효

능감과 의사소통능력과 같이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들을 고려한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학점, 전공만족도로 나타나 임상실습 만족도에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5]와 학점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3,24] 및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7,34]와 유의미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실습에 임하게 하여 임상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며[38],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전공에 대한 습득능력과 이해도가 높고 전공만족도도 높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임상실습 시 환자 및 보호자를 비롯한 치과인력 등과 의사소통에서 오는 어려움은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시키고 만족도를 낮아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과과정 개설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학년 때부터 학습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사소통을 인식하는 집단에서 자기효능감도 높으며 두 요인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고[32],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제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더 의미 있게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39]. 따라서 향후에는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과 치위생교육의 질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충청남북도에 위치한 3년제 3개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치위생(학)과 전체 학생들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만을 조사한 결과이므로 향후에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간호학과 학생들과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반해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과만 비교·분석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하

겠다. 향후에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4년제 학생들까지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대상지역도 넓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는 치위생교육의 질과 졸업 후의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족요인과 불만족 요인을 함께 탐지하는 후속 연구가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임상실습 경험한 201명의 치위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자기효능감 3.37점, 의사소통능력 3.70점, 임상실습 만족도 3.88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과 양의 상관관계였고, 자기효능감도 의사소통능력과 양의 상관관계였다. 자기효능감과 학점 및 전공만족도는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이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19.0%였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었다.

## REFERENCES

- [1] S. M. Lee & K. S. Park. (1999). A Q-methodological study on the professional image of a dental hygienist. *The chung-Ang Journal of Nursing*, 3(2), 73-94.
- [2] S. K. Kim, R. U. Kang, E. Y. Kim, J. E. Moon, J. H. Jang & E. S. Jung. (2018).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and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8(2), 239-251.  
DOI : 10.13065/jksdh.2018.18.02.239
- [3] S. U. Hong, J. H. Han, H. K. Kim & Y. S. Ahn. (2009). A Study on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and Somatization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9(2), 219-224.

- [4] W. H. Lee, S. S. Kim, S. H. Han, S. Y. Lee & G. Y. Kim. (1995).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of a preceptorship for the improvement of clinic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5(1), 581-596.
- [5] J. S. Kim. (2008). *The need for standardization of clinical practice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t Jeonbuk area*.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Iksan.
- [6] H. S. Oh. (2013). Study on the teaching efficiency and satisfaction levels of clinical practice instructors during clinical practice training for some dental hygienists and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3(5), 777-786. DOI : 10.13065/jksdh2013.13.05.777
- [7] T. S. Kim & K. H. Lee.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4), 123-141. DOI : 10.15753/aje.2012.13.4.006
- [8] D. Duggleby, D. Cooper, & K. Penz. (2009). Hope, self-efficacy, spiritual wellbeing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11), 2376-2385. DOI : 10.1111/j.1365-2648.2009.05094.x
- [9]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DOI : 10.1037/0033-295X.84.2.191
- [10] A. Bandur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 Hall.
- [11] J. H. Song & H. J. Kim. (2020).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Incivility, Career identity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9), 102-110. DOI : 10.22156/CS4SMB.2020.10.09.102
- [12] M. S. Yoo, Y. J. Son, I. Y. Yoo & S. K. Hong. (2006).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Clinical Skil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3(3), 343-350.
- [13] S. Trenholm & A. Jensen. (2004). *Interpersonal communica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14] S. A. Lim & H. J. Yoon. (2013). Influencing factors for the empowerment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3(4), 669-676. DOI : 10.13065/jksdh.2013.13.4.669
- [15] R. Schwarzer, M. Jerusalem. (1995).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 In J. Weinman, S. Wright, & M. Johnston (Ed.), *Measures in health psychology: A user's portfolio*, Windsor, UK : NFER-Nelson.
- [16] G.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9.
- [17] M. J. Jun, M. S. Yu & H. S. Kim. (2018). On Convergence Impact Influencing of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ist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127-136.
- [18] J. S. Yang. (2000).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dental hospital by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24(3), 205-216.
- [19] S. Y. Mun & N. Y. Yang.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 Learning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4), 473-480.
- [20] B. J. Chang & K. H. Song. (2005). A stud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1(1), 81-90
- [21] M. S. Cho & S. S. Lee. (2018). The relation of autonomy and on-sit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2), 73-81.
- [22] Y. K. Han & H. H. Kim. (2015).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Image of Dental Hygienists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5(4), 457-464. DOI : 10.17135/jdhs.2015.15.4.457
- [23] M. K. Jeong & J. Y. Lee. (2012).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linical practice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2(6), 1241-1249. DOI : 10.13065/jksdh.2012.12.6.1241
- [24] J. H. Pa r k, M. J. Lee & H. J. Goo. (2015). Satisfaction towards clinical training institution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contents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4), 631-639. DOI : 10.13065/jksdh.2015.15.04.631
- [25] Y. I. Kim. (2016).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 Dental Hygiene*, 16(3), 401-407.  
DOI : 10.13065/jksdh.2016.16.03.401
- [26] S. S. Lee & M. S. Cho. (2019). Dental hygiene students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Dental Hygiene Science*, 2(2), 1-12.  
DOI : 10.22753/JKDHS.2019.2.2.1
- [27] K. Pakieser-Reed. (2006). *Nursing practice self-efficacy and nursing practice outcome expectation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Wisconsin University, Milwaukee.
- [28] S. N. Lee & E. S. Kim. (2015).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Occupational Value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8), 5304-5313.  
DOI : 10.5762/KAIS.2015.16.8.5304
- [29] S. H. Kim & J. S. Hahn. (2007). Relations among learner's personality types, self-direction, attitudes and self-efficacy toward technology, and achievement in cyber university.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3(2), 79-106.
- [30] S. Y. Kim. (2019). The Factors Affecting Problem Solving Abilit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Skills, and Autonomous Educational Climate in Dental Hygiene Department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2), 244-251.  
DOI : 10.22156/CS4SMB.2019.9.12.244
- [31] S. A. Lim. (2017).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by Self-esteem for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77-84.  
DOI : 10.15207/JKCS.2017.8.9.077
- [32] M. S. Choi. (2017). Convergence Study about Awareness towar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efficacy : Centered on the 'S' Univers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6), 79-87.  
DOI : 10.22156/CS4SMB.2017.7.6.079
- [33] H. S. Jeong & K. L. Lee. (2012).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5), 2635-2647.
- [34] M. S. Cho & C. S. Kim.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levels of education and clinical practice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5), 649-657.  
DOI : 10.13065/jksdh.2014.14.05.649
- [35] S. Y. Han. (2018). Self efficacy, Fatigu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Korean J Healthcare Communication*, 13(2), 133-140.  
DOI : 10.15715/kjhcom.2018.13.2.133
- [36] J. W. Park & M. S. Choi. (2009).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30), 351-360.
- [37] Y. J. Oh. (2004). Father-Child Communication Style and Self-efficac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201-219.
- [38] M. W. Shin & Y. S. Kim. (2008). The Effects subjective fatigue symptoms To job satisfaction in daejon city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 of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8(1), 73-91.
- [39] H. S. Choi & O. B. Chung. (2001). The Development of an Inventory for Measuring the Parenting Self - Efficacy of Korean Mot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3), 1-15.  
DOI : 10.13065/jksdh.2016.16.06.993

이 미 라(Mi-Ra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단국대학교 구강보건학과 석사(구강보건학 석사)
- 2012년 2월 : 단국대학교 보건학과 박사(보건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학, 구강보건학, 치과재료학, 융합  
· E-Mail : lmr3500@hanmail.net

정 수 진(Su-Jin Jung)

【정회원】



- 2009년 2월 : 단국대학교 구강보건학과 (구강보건학 석사)
- 2012년 2월 : 단국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보건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학, 구강보건학, 노인구강보건학  
· E-Mail : sjjung@konyang.ac.kr